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01 제17회 한국여성대회

2001년 3월 4일(일) 오후 1시 | 정동이벤트홀



차별? 편견?

평등 · 참여사회로!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2273-9635)

후원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KBS SBS 한겨레신문사 중앙여성신문사

협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자연이 만든 녹색댐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천연의 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숲은 흙과 흙 사이의 공간에 많은 물을 저장해 홍수를



막아 주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저장한 물을 풀어 가뭄을 해결해 주는 '천연의 댐'입니다. 낙엽활엽수림으로 덮인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의 14배나 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지난 30년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숲이

한 해에 저장하는 물의 양은 소양강댐의 10개분과 맞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은 흙이나 나무를 통해 비와 눈을

정화시킴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주기도 합니다. 숲을 가꾸고 키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 숲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이 만든 녹색댐



- 2001년 여성선언문 ②
- 제1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④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
- 여성권익 디딤돌 ⑥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사건 유가족
- MBC 드라마 '아줌마' 제작팀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모임
-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 분회
- 가수 안혜경
- 여성권익 걸림돌 ⑦ 외교통상부 이정빈 장관
- 호텔롯데 장성원 사장
- 서울지방법원 김선종 판사
-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
- 육군 김학연 소장
- 함께하는 사람들 ⑧ 김재원 / 남윤인순 / 오한숙희 / 정미홍 / 뮤지컬 난타
- 제3회 여성문화제 '새로운천년' 본선진출작품 ⑩
- 3·8세계여성의 날 유래 ⑮
- 여성연합 회원단체 ⑯
- 한정식 '어머니의 딸' 소개 ⑰

Program

- 기·념·식 사회 | 정미홍(방송인), 남윤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 ▶ 회원단체 기수입장
- ▶ 개최선언
- ▶ 2001년 여성선언 채택
- ▶ 축하 영상편지 |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
- ▶ 내빈 소개
- ▶ 축하 | 여성부 한명숙 장관
- ▶ 올해의 '여성권익 디딤돌 & 걸림돌' 발표
- ▶ 제1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

제 3 회 여 성 문 화 제

- 사회 | 오한숙희(여성학자), 김재원(KBS 아나운서)
- ▶ 제3회 여성문화제 '새로운 천년' 본선대회
- 영상분야 | 이제는 말한다(서일고등학교 방송부), 인형뽑기(손정수), 햇살아래(울산여성회)
- 문헌분야 | 햇살아래(호서대학교 물새)
- 노래분야 | 당당히 소리쳐 손가락질 해(한국성폭력상담소 노래도적) 위기일발 아저씨(무슨연구소)
- 이제그만(여성예술집단 오름)
- ▶ 시상식
- ▶ 수상작 영률공연
- ▶ 축하공연 | 뮤지컬 '난타' 하이라이트
- ▶ 어울림마당 | '다함께 감감수월래'

이 경 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2001 여성선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 하 은 회



최 신 혜 수



리 오 경 숙

차별, 편견 깨뜨리고 남녀평등·공동참여 사회로 나아가자!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차별과 가부장제 인습에 당당히 맞서며 남녀평등·공동참여 사회를 향해 달려온 여성 여러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7회 한국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뜨거운 자매애로 인사드립니다.

② 눈부신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축복으로 노래했던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우리 여성들은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분단에 맞서 평화와 화해를, 가부장제에 맞서 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싸워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만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부문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여성인권을 위협하던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희롱은 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가장 큰 성과인 성차별적 법과 제도의 개선은 아직도 가정과 직장,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개선됐지만 뿌리깊은 가부장적 편견과 관행은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반면 가해자는 멋있게 활개치는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편견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 가부장제 의식을 강화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저해하는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성평등사회, 민주사회, 생태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은 많은 위협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유전자조작 식품과 광우병의 출현, 인간복제로 인한 생명경시는 위험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중심이 아닌 이윤중심의 가치를 양산시키고 있는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성장중심의 가부장적 한국 사회를 더욱 왜곡시켜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 생존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로를 보상받기는커녕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신 가부장제로 인해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우선 정리해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위해 국가책임의 사회복지 확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노인 부양의 사회화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일이나 가정이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은 여성뿐 아니라 가족 모두와 사회 구성원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는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을 향락산업으로 내몰며, 우리 딸들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매춘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유린은 더 이상 사회의 치부로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성매매 예방과 매매춘 여성의 보호, 매춘산업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윤중심의 시장경제를 유포시키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책임을 묻는 IMF(국제구제금융)와 World Bank(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를 향한 세계여성행진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여성들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반대하는 힘찬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는 진전되고 있지만 군축과 방위비 삭감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산모와 아동에게 내복을 보내주기 위한 활동을 기반으로 우리 여성들은 통일을 준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성통일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남녀평등·공동참여 사회를 향한 여성행진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애는 여성운동과 여성단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입니다. 재정부족과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여성단체에 대한 모금과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모두의 뜻을 담아 남녀평등사회, 남녀공동 참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해의 여성운동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전국의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여 나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요구

- 열린사회, 평등가족, 남녀평등 가로막는 호주제도를 폐지하라!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수발노동의 사회화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라!
- 무분별한 비정규직화 확산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라!
- 매매춘 예방과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가칭)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라!
- 통일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방위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예산 증액하라!

2001년 3월 4일

제17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제1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윤 정 옥(尹貞玉 만 76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는 이화여대 재직 시절인 90년 11월에 정대협을 결성하고, 91년 대학은퇴와 동시에 정대협 일을 맡아 10여년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한 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동년배로서,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었던 정신대 문제를 끈질긴 집념으로 조사·연구하고 사회이슈화시켜 한평생을 정신대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윤정옥님은, 평범한 학자에서 운동가로 변신한 후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 60이 넘어서 인생을 배웠다'는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우리 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침묵을 강요해온 역사 다시 쓰기를 위해 76년의 세월을 다 바쳐오셨고, 지난 2000년에는 국제법정 실행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일본 전 국왕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76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을 누비며 '정신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운동'을 평생의 소망이며 목표로 살고 계신 윤정옥님을 제1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2001년 3월 4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7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하은회 최신헌수 리오경숙

■ 활동 내용

수십년간 숨겨져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진실로 드러내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켰다.

70년대 중반 일본인이 쓴 '위안부'에 관한 논문을 통해 어린 시절 소문으로만 들던 '위안부'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79년부터는 일본, 태국, 미얀마 등지를 답사하면서 정신대에 끌려갔던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정신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88년의 한 국제세미나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신대 문제는 처음 사회이슈화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의 분노와 결의가 90년 11월, 36개의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탄생시켰다.

수치스러운 역사로 간주하여 수십년간 묻어두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폭로하고, 이를 사회운동화하여 '위안부' 문제를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이슈로 만들어 전쟁중 강제로 성적 학대를 당해야만 했던 전세계 모든 여성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평생을 바쳤다.

한평생을 학자적 양심과 끈질긴 집념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동년배로서,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었던 정신대 문제는 한평생을 통해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또한 과거사를 쉽게 잊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여성의 인권문제를 수치스런 역사로 묻어두려는 사람들의 비감함은 윤정숙 개인의 숙제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기게 한 이유이다. 어린 시절 들려오던 해괴한 풍문들을 역사적 진실로 밝히기까지 한평생을 학자적 양심과 끈질긴 집념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왔다.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성공으로 이끌어, 한·일 양국간 여성인권문제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에 공헌하였다.

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일본을 고발한 지 10년만인 2000년에 '국제법정' 실행위원을 맡아 국제 여권활동가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정의 형식으로 법정을 여는 일에서부터 참여를 꺼려하던 판·검사들의 설득, 남북공동기소장 제출, 일본 전 국왕 유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공헌하였다.

■ 주요 이력

1949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1953~55	미국 스캐릿 대학원 졸업
1964~67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1980	영국 엑세터 대학교 연구
1955~58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사무
1958~91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1991	이화여대 은퇴
1990~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2000	'이천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위원장

■ 저 술

- 논문 Charles Dickens의 Great Expectations - Pip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외
- 전기 산초의 씨름 - 윤성렬 목사 일대기



개인적 보상이 아닌 사회적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 유가족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 화재사건으로 이 업소에 감금되어 매춘을 강요당하던 5명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후, 무연고자 2명을 제외한 3명의 유가족은 경찰의 연락을 통해 딸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었다. 딸이 매춘여성이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 태도와 여러 가지 의혹에 분노, 매매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녀의 죽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포주와 관련공무원, 경찰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애쓰시는 모습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있기에 다짐들에 선정하였다.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컨트리클럽) 분회'

한국 최초의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으로써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및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모임조차 갖기 힘든 근무 형태, 인격적 무시, 부당해고, 폭력 등에 굴하지 않고 88CC분회는 2000년 한해동안 자신들 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고, 이 활동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골프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여러 악조건속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여론화 시키고 노동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줌마의 독립과정을 그리는 MBC 드라마 '아줌마' 제작팀



초반기, 남편만을 자기 삶 초의 중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전업주부 오삼숙의 생활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속에 저조한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학문적 동지'를 발미로 예정행사를 일삼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가자던' 결혼약속을 외면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반기를 들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아줌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특히, 이혼을 부추키려는 비판속에서도 이혼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오삼숙이 홀로서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여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오삼숙의 이혼 과정을 통해 여성운동계의 최대 이슈인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호주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호주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내었다.

반기, 남편만을 자기 삶 초의 중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전업주부 오삼숙의 생활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속에 저조한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학문적 동지'를 발미로 예정행사를 일삼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가자던' 결혼약속을 외면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반기를 들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아줌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특히, 이혼을 부추키려는 비판속에서도 이혼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오삼숙이 홀로서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여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오삼숙의 이혼 과정을 통해 여성운동계의 최대 이슈인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호주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호주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내었다.

호주제폐지의 선행 나팔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모임'

1998년 11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모임(호페모)은 호주제폐지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으로 매월 1회이상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오면서 호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해 젊은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냈다.



여성노래 만들어 공동하고 건강한 문화 일구는 노래전사, 가수 안혜경

어디선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짹짹편하고 나타나서 힘을 주는 사람, 안혜경. 여성모임·대학가와 시민단체에 '까치길', '커피 카피아가씨', '내발 좀 들어봐요' 등의 작곡자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다. 1995년에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하여 한국대표로 공연을 하기도 하였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기부터 홀홀단신 여성노래를 만들어왔다.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밴드 '바고'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최근 라틴여성밴드인 '아마존밴드'로 활동하여 여성주의 문화를 발굴·전파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특히 2000년에는 여성주의 뮤지컬 '밥퍼? 랩퍼!'에서 아줌마랩퍼로 분해 대학로 연극계를 달구었다.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현직 장관으로서 여성비하적인 성희롱 발언을 함으로써 모
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였기에 결림돌
에 선정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성희롱문제를 국가차원의 정
책으로 시행하고자 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을 제정한 바 있으나, 한 나라의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출입기자들과 외교통상부 간부들과의 술
자리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자질도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는 관대하기만 하다. 이장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여성인권 실
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여성인권침해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성
희롱 및 남녀차별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및 홍보
활동이 더욱 결실하게 요구
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해고한
'호텔 롯데 장성원 사장'

여성노동자의 70%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경험하면서, 사
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호텔 롯데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
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사인하
도록 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도 일부만 징계할 뿐 가
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호텔 롯데는 성
희롱 피해사실을 알린 4명의 여성에 대해 보복성 해고를 자
행했다. 호텔 롯데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성희롱한 가해
상사에게는 미온적 조치를, 피해 여성노동자에게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직장내 성희롱을 묵인, 방조하여 여성
들의 고용조건과 고용환경, 노동권에 심대한 타격과 불이익
을 주었다.

사내부부 여성해고의 부당성을 전언 부정하여 여성노동권 후퇴
시킨 '서울지방법원 김선중 판사'

1999년말 명예퇴직 과정에서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
의 사내부부에게 사표를 내게 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김선중 판사, 정종철 판사, 최건호 판사)
재판장 김선중 판사는 농업의 사내부부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농업중
央회가 원고들의 남편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을 그들의 의
사와 무관하게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에
게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중앙회의 어
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
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 중앙회의 협
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사직해고자와 농업중앙회 사이에 근로
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
결 이후, 사내부부에 대한 명예퇴직 강요를 하는 사업장에서
는 사내부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되고 있어, 이 판결은 사내부부 여성의 부당해고 위법성을
부정한 판결로 여성노동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고용평등 역행하는 공기업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

2000년 12월 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은 구조조정을 한다
며 사내부부사원을 표적으로 한 명예(희망)퇴직 강요, 인
력풀세 운영, 계약직 해고 등 무차별적인 인력감축을 하였
다. 특히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면서 사내부부
를 대상으로 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대기발령시킨다, 인
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다음에는 해고대상이 되고 명예금도
없다, 이번이 기회니 알아서 나가라는 등등의 강요를 하였
고, 심지어는 목욕탕 앞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사내부부
여성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
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등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
기도 하였다. 사내부부를 명예퇴직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여성노동자 퇴직 강요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생존
권과 노동권을 짓밟은 부
당하고 성차별적인 행위
는 명백한 여성권익 결림
돌이다.



여군들의 군생활을 위협하는 성희롱 장군, '육군 김학연 소장'

군법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사회
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워 여군을 성희롱한 육군사단장
김모소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정적 3개월의 처
벌에 불복하여 항고를 신청하고, 피해 당한 여군에 대한 음
해와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여군을 성추행하여 500여명
에 달하는 여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성차별 없는 평등한 군
대문화 정착을 꾀한 김모 사단장같은 성희롱 군인은 반
드시 없어져 할 여성권익 결림돌이다.

김재원 (KBS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21기로 95년에 입사하였다. 지금은 KBS TV '아침마당 토요일엔 트'와 '세상은 넓다', '웹메거진'을 진행중이다. 하고싶은 프로그램이 장기 해외 기행이나 장애인프로그램일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 여성단체와는 2000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행사 사회를 보면서부터인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자세로 진행하는 그를 대하면 때론 구도자의 모습까지 엿보이기도 한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58년 개띠이다.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여성운동에 뛰어들어 10여년. 88년 인천 일하는여성의나눔의집 간사, 89년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과 부회장을 거쳐 9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실무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본인은 여성운동을, 남편은 환경운동을 하며 운동권부부(?)로 살아가는 그는 인천 만수동에서 여연 사무처가 있는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집까지 매일매일 오가며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성공회대 대학원에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정말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오한숙희 (여성학자, 김포여성민우회 대표)

KBS '생방송 여성'의 진행을 하며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진솔하게 풀어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 특강을 다니고 '인생상담', SBS-TV '남자를 위하여', CBS-라디오 '오숙희의 정보시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그래, 수다로 풀자', '오숙희에세이-부부', '너무 아까운 여자', '딸들에게 희망을'에 이어 '솔직히 말해 나는 돈이 좋다'까지 여성들이 하고픈 이야기를 세상에 대신 외쳐주는 소리봉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포여성민우회의 대표를 맡아 여성문제해결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두주자.





정 미 홍(방송인)

이화여대 법학과와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 사회과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사람들에게는 전 KBS 앵커와 서울시장 선거 부대변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최초의 서울시 홍보담당관으로 서울시 CI 프로젝트를 기획·집행하였고,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대중교통이용캠페인'으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홍보대행사 J&A(Jung & Associates)의 대표이사로, 미디어홍보분야의 대표적 여성주자이다.

뮤지컬 난타

199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Non-verbal Performance가 세계 공연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할 무렵, (주)PMC 프로덕션에서 국내 작품의 한계를 안타깝게 여겨 재검토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1996년부터 세계인을 타겟으로 하는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수렴하던 중,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취지 아래 우리 고유의 리듬과 공간을 소재로 하겠다는 기본틀을 만들게 되었다.

'난타(亂打)'란 권투시합의 난타전처럼 마구 두드린다는 뜻이다. '난타'는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드라마화 한 작품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Non-verbal Performance이다. 한국의 사물놀이를 서양식 공연양식에 접목한 '난타'는 대형 주방을 무대로 하여 네 명의 요리사가 등장하여 결혼피로연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주방기구 즉 냄비, 후라이팬, 접시 등을 가지고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물놀이의 리듬이 갖고 있는 원시적 폭발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힘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리듬과 비트로만 구성된 작품이면서도 뚜렷한 줄거리와 드라마가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새로운 천년!

여성문화제 - 새로운천년

여성연합에서 세 번째로 개최하였다. 여성문화제 '새로운 천년'은 건강하고 올바른 여성의식을 담고 있는 문화작품을 찾아보기 힘든 기성문화산업의 홍수속에서, 남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활동으로서 작품을 발굴·전파하는 국내 유일의 여성문화 공모전이다. 2회까지의 수상작들을 모아 지난해에 [2000 여성노래 발·기(『팔도아, 기지개짜자!』)] 카세트테이프 발매되어 전국의 대학가와 여성단체에 보급되었다. (카세트테이프 구입문의 02-2273-9535)

여성문화제 -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

이오경숙(여성연합 공동대표 / 문신분야 예선 및 본선전체 심사)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의 공동대표이다. 20여년간 여성운동을 해온 여성계의 지도자로, 여성단체의 총무로부터 지금의 대표까지 한 눈파는 일없이 여성운동의 한 길을 걸었다. 현재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미디어문화분야에서 건강한 여성상 확산과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총력투진이다.



심사위원

백창우(작사가, 작곡가, 시인, 음악프로듀서 / 노랫분야 심사)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의 작곡자로 익히 알려져 있는 백창우씨는 네 권의 시집과 여섯장의 작곡집을 냈으며 '노래마음' 1·2·3집, '김광석 트리뷰트앨범'을 비롯해 스무장 가량의 음반을 기획·연출하였다. 스무해 가까이 시 쓰고, 노래 만드는 일을 해 온 사람으로 '아이들의 삶과 마음과 꿈이 담긴 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전문 음반사 '삼삼개'를 만들어 전래동요와 창작동요를 음반과 책으로 담는 일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래모임인 '굴렁쇠 아이들'을 만들어 함께 공연활동도 하고 있다.



안혜경(작사가, 작곡가, 가수 / 노랫분야 심사)

79년 노래극 '공장의 불빛'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환경문제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 자연, 여성을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들고 불려왔다. 95년에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 한국대표로 공연을 하여 한국의 여성문제를 문화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하였다. 독집음반 1·2집을 발표하고,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밴드였던 '마고'를 임태해낸 장본인이다. 97년에 여성연합에서 공모한 여성노래에서 당선된 '밀음의 언덕', '바다되는 법', '힘모아 힘을 줘'의 작곡자이며, 최근엔 여성주의 뮤지컬에 출연하기도 하였고 여성리타인인 '이마손밴드'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 영상분야 심사)

여성연합의 문화위원장을 지냈고, 6년간 3·8여성대회의 총연출을 맡아왔다. 87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연극연출을 해오고 있으며, 사람들과 친숙해지기는 연극 '자기만의 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마조네스의 꿈'을 기획하면서부터이고, 최근 '마요네즈', 뮤지컬 '뽕파? 뽕파!'를 대학로에 올렸다. 영상분야에서는 제1·2·3회 서울여성영화제의 기획·집행위원장으로 여성영화 발굴과 전파에 힘쓰고 있다.



▶ 햇살 아래 (호서대학교 '물새' 출품)

여성노래 2000 '팔·기' 카세트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 '햇살 아래'라는 곡에 집단문선을 구성하였다. 노랫말처럼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암울해도, 언젠가 비취줄 아침햇살과 같은 희망을 잃지말기를 몸짓으로 이야기한다.

〈노랫말〉

언제나 한밤중 알도 뉘도 보이지 않았던 / 지난 몇해는 건디기 힘들었던 절망의 시간
아침은 언제 소리도 없이 왔을까 / 그러나 잊지마 하얀 햇살 오기전 어두운 밤을
우물처럼 어두웠던 세월아 이제 나에게도 길을 보여줘
굽이굽이 알아놓은 세월아 이제 나에게도 길을 열어줘
빨래처럼 무거웠던 절망을 햇살아래 널어두고 후후
이제 우리앞에 펼쳐진 행복한 날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 이제는 말한다 (서일고등학교 방송부 출품 / CF)

한 여고생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시작되는 이 작품은 어른들의 그릇된 성의식이 상대방 뿐만 아니라 또다른 생명에게도 비극을 낳는다는 내용으로 넥타이를 통해 권위적이고도 이중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사회에 전반적인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공익광고이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잊고 지낼 때,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싶은 충동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릇된 성문화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희망없는 미래 뿐이다. 청소년과 그릇된 우리사회의 성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다.



▶ 인형 뽑기 (손정수 출품 / 극영화)

어릴 적에 엄마아빠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지혜는 따뜻한 가정이 그림자. 지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는 재혼을 했고 예쁜 동생도 생기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살지는 못한다. 새아버지의 집에서 지혜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끔 어른들이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자신의 성이 왜 동생과 달라야 하는지 지혜는 궁금하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2학년이 되면 데려가겠다는 엄마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던 지혜는 할머니가 늦게 돌아오시면 어느 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혼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는 그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주위의 많은 여성들이 또 아이들이 그 낡은 제도로 인하여 소리 없이 억압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 햇살 아래 (울산여성회 출품 / 다큐멘터리)

울산여성회에서 실직여성가장 지원사업을 펼치며 만났던 실직여성가장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성실업대책위에 꾸준히 받으며 온 여성가장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임을 만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팔자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소리내기 시작하는데...

이혼·사별·별거 등의 이유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들에게 사회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혼자 사는 여자라는 편견 속에서 그녀들은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기부장제와 자본주의하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삶의 보여주고 싶었다.

당당히 소리쳐 손가락질 해

박찬숙 글·곡



1. 출 퇴 - 근 길 초 - 만 원 지 - 하 - 칠 에 서 날 - 마 다 큰 두 서 는 기 막 힌 사 연
2. 학 교 예 가 도 직 장 예 가 도 지 하 칠 의 그 공 토 이 탄 인 지 상 탄 인 지 계 속 되 는 대
3. 용 - 기 를 내 - 어 서 신 - 고 - 했 더 침 수 받 는 선 - 생 님 하 시 는 말 씀



아 - 니 나 - 다 를 - 까 움 - 림 - 한 손 길 얼 - 굴 도 모 르 는 데
아 - 니 나 - 다 를 - 까 움 - 림 - 한 손 길 얼 - 굴 도 모 르 는 데
과 다 노 술 - 당 신 - 도 책 임 있 - 다 그 냥 - 짐 으 로 가 래



아 - - 파 중 나 년 달 이 리 나 소 - 림 이 - 콧 콧 콧 물 아 오 는 데
당 신 만 - 좋 으 면 되 는 건 가 요 나 는 너 무 - 황 당 해 물 것 같 은 데
나 참 - 기 막 히 발 문 이 막 히 가 습 까 지 - 툅 툅 툅 막 히 오 는 데



우 리 업 마 옛 날 에 도 당 해 완 전 일 새 림 총 리 - 세 상 이 좋 아 졌 다 지 만
우 리 업 마 옛 날 에 도 당 해 완 전 일 새 림 총 리 - 세 상 이 좋 아 졌 다 지 만
그 - 리 면 가 울 에 는 안 심 해 도 되 나 요 침 갈 으 신 선 생 님 도 어 림 - 만 되 면



이 - 런 건 왜 - 단 번 해 하 - 지 만 업 마 처 립 참 고 - 과 - 하 다
이 - 런 건 왜 - 단 번 해 직 장 예 사 람 될 까 봐 참 고 고 민 하 다
어 뵈 수 없 이 침 수 되 나 요 선 - 생 님 아 내 라 도 따 님 - 이 - 라 도



다 음 역 에 서 내 - 리 는 바 보 는 아 니 아 달 달 히 - 소 리 - 쳐
달 하고 마 는 - 어 리 숙 쟁 이 바 보 는 아 니 아 달 달 히 - 소 리 - 쳐
당 해 도 싸 다 - 모 르 - 는 죄 댔 어 들 건 가 요 밭 갈 지 않 은 밭 - 씀
(당 달 히 - 소 리 - 쳐)



손 가 학 - 질 해 - 그 못 된 버 르 장 - 머 리 박 - 고 처 주 자
손 가 학 - 질 해 - 그 못 된 버 르 장 - 머 리 박 - 고 처 주 자
손 가 학 - 질 해 - 그 못 된 버 르 장 - 머 리 박 - 고 처 주 자
손 가 학 - 질 해 - 그 못 된 버 르 장 - 머 리 박 - 고 처 주 자

위기일발 아저씨

무슨연구소 글·곡



아저 씨 큰 일 났 네 - 어찌 다 움 붙 었 네 -



아저 씨 쫓 막 망 했 - 네 아주 실 패 가 렸 네 -



아저 씨 - 지 금 이 라 도 - 그 년 이 - 보 션 - 다 고 - 우 겨 - 대 면 -



혹 시 알 - 아 - 매 니 아 가 생 - 길 지 - 그 저 내 키 는 - 대 로 - 변 해 - 터 진 - 속 속 동 호 회



지 금 쫄 - 사 과 해 도 - 사 람 들 - 은 바 보 - 라 고 놀 - 릴 테 지



어 찌 다 - 움 붙 어 서 - 본 보 기 로 결 - 려 다 - 고 아 무 렵



- 어 땀 젖 어 - 아 저 번 - 대 충 인 - 생 조 지 - 고 - 가 족 들



- 은 똥 물 려 도 - 몇 개 월 - 만 지 나 - 편 언 세 - 그 려 나 - 눈 닷 토



아 가 씨 영 - 덩 이 를 - 쓰 다 들 을 걸 -

이제 그만

이해란 글 이원경 곡

아 래 위 모 - 풀 어 보 - 는 - 근 직 한 시 선 -

엄 락 이 예 - 림 근 하 - 는 - 불 순 한 눈 길

키 스 는 - 해 봤 나 - 고 - - 시 림 은 - 갈 겨 나 - 고 -

잡 요 하 게 문 - 는 그 더 러 운 입 술 - 아 부 리

기 름 에 도 - 막 - 을 수 가 없 어 - 울 어 도 소 리 처 도 - 멈 - 추 지 를 알 아 - 수 희 와

경 약 으 로 - 상 차 난 내 가 슬 예 - 어 느 것 시 켜 린 분노 의 그 참 미 신 다 - -

음 흥 하 - 게 - 되 다 보 자 마 - 그 눈 길 을 거 뒤

재 미 삼 - 아 - 말 하 지 도 마 - 그 림 들 을 탄 아 - 은 - 근

슬 켜 - 더 뜰 지 - 도 마 - 그 눈 길 을 치 휘 - 더

이 상 - 할 - 지 않 아 - 용 서 할 수 가 없 어 - 이 - 세

그 만 - 이 - 제 그 만 - 아 - 제 그 만 - 이 - 제 그 만 -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날

15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날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해 두세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구의 동과 서에서,
당신들의 이제껏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로써 비로소 당신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 날은 그저 약하기만 한 당신이 '여성'임을 자각하는 순간,
운명처럼 여겨지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908년 3월 8일'
15,0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하늘 아래 여자와 남자는 다를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의 날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단 체	전 화	전 송	통 신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02)2273-9539	KWU(천·나·하), 4KWU(유)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단 체	전 화	전 송	통 신
경기여성단체연합	031) 458-3050	031) 459-3877	안양여성(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 225-6078	062) 225-6076	KCWU(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 425-7701	053) 425-7701	PKWHL(나)
부산여성단체연합	051) 817-4321	051) 817-4320	PWHL(나)
전북여성단체연합	063) 287-3459	063) 287-1226	전북여연(나)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단 체	전 화	전 송	통 신
경남여성회	055) 282-9605	055) 282-9606	KNWM(나), KNWM(천)
기독교민회	02) 2265-7957	02) 2263-8090	KWM1986(나), KWM1986(천)
대구여성회	053) 421-6758	053) 424-1245	DWAE(나), DWA(천)
대전여민회	042) 257-3534	042) 257-9790	FREE3534(나)
부산성폭력상담소	051) 513-2475 (상담 : 514-3330)	051) 513-2476	PCCA(나)
부산여성사회교육원	051) 622-2115	051) 621-4958	FEMINEDU(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 747-2442	02) 747-2447	천여공(나), KCWC(천)
새울터	031) 867-4655	031) 867-4655	SWOOM(나), SWOOM(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063) 283-9647	063) 287-1658	SVPC(나), SVPC(천)
수원여성회	031) 241-7530	031) 241-7532	수원여성(나), YKS22(유)
안양여성회	031) 458-3050	031) 459-3877	안양여성(나)
여성사회교육원	02) 2278-7705	02) 2278-7706	여성교육(나), WSR92(하)
울산여성회	052) 292-7440	052) 296-7441	울산우연(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 529-6349	02) 529-6332	KWFA(나), KWFA(천)
제주여민회	064) 756-7261	064) 756-7262	여민(나), VIVARI(천)
충북여성민우회	043) 273-1591	043) 263-8124	충북여민(나), CBWM(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 2264-8649	02) 2275-4861	WMPEACE(나), WMP(천)
포항여성회	054) 275-7436	054) 282-1798	PHWOMEN(나), PHWOMEN(천)
한국보육교사회	02) 2275-8505	02) 2275-8506	KOTA(나), KOTA(천)
한국성폭력상담소	02) 576-5513	02) 576-7127	STOPRAPE(나), KSVRC(천,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0505) 533-3838	02) 365-8766	KWWA(나,천,참)
광주여성노동자회	062) 525-3029 (상담 : 512-1287)	062) 525-2896	광주여노(나,참)
마산여성노동자회	055) 294-5355 (상담 : 264-5409)	055) 295-5355	MCWL(나), 마산여노(참)
부산여성회	051) 557-4214 (상담 : 557-4261)	051) 557-4621	부산여성(천)
부천여성노동자회	032) 668-1011 (상담 : 668-1016)	032) 668-1015	PWWA(천,참)
서울여성노동자협의회	02) 867-0516 (상담 : 853-8354)	02) 867-0516	SWWA(나), 서울여노(참)
안산여성노동자회	031) 495-6844 (상담 : 494-4362)	031) 495-6845	AWWC(천,참)
인천여성노동자회	032) 863-2659 (상담 : 862-1007)	032) 873-1009	women(천), women(참)
전북여성노동자회	063) 851-2453 (상담 : 851-2453)	063) 851-2453	전북여성(참)
한국여성민우회	02) 737-5763	02) 736-5766	민우회(나/천)
고양여성민우회	031) 919-1195	031) 919-1197	WOMENGY(천)
광주여성민우회	062) 225-0383 (상담 : 225-0410)	062) 225-0152	
군포여성민우회	031) 396-0201 (상담 : 399-0201)	031) 396-0201	
김포여성민우회	031) 986-6007 (상담 : 986-7942)	031) 985-0443	민우김포(천)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 2643-1253	02) 2643-1252	남서풍(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 3492-7140	02) 3493-9221	
원주여성민우회	033) 732-4116 (상담 : 744-4117)	033) 732-4116	
진주여성민우회	055) 743-0410 (상담 : 743-0210)	055) 746-9771	진주여성(나)
춘천여성민우회	033) 255-5557	033) 243-9746	
인천여성민우회(춘)	032) 501-0155	032) 512-4380	
한국여성연구소	02) 2273-6206	02) 2273-6207	KWSI(나)
한국여성학자협의회	02) 2275-7754	02) 2269-0670	KAWT(나), KAWT(천,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 2269-2962	02) 2237-1028	KWHL(나), KWHL(천,하)
강릉여성의전화	033) 643-1985 (상담 : 643-1982)	033) 642-1980	KRWHL(나)
강화여성의전화	032) 934-1903 (상담 : 934-1900)	032) 934-1902	KHWHL(나)
광명여성의전화	02) 2614-7739 (상담 : 681-0238)	02) 2614-7673	KMWHL(나)
광주여성의전화	062) 363-7739 (상담 : 363-0442/3)	062) 363-0486	KJWHL(나)

회원단체 부설기관

회 원 단 체	부 설 기 관	전 화	전 송	상 당 전 화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실업극복여성지원센터	063) 287-3460	063) 287-1226	063) 287-1226
경남여성회	남산사회교육센터	055) 2282-9605	055) 2282-9606	055) 2282-9603
대구여성회	성·가족상담소	055) 2244-9009	055) 2244-2753	055) 2244-8400
대전여성회	평등의전화	053) 421-6758	053) 424-1245	053) 427-4577
대구여성의전화	가족·성상담교육센터	042) 257-3534	042) 257-9790	042) 255-3534
서울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53) 475-8084	053) 472-1711	053) 475-8083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53) 475-8086	053) 472-1712	053) 475-8082
성남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2) 2272-2161	02) 2272-2190	02) 2263-6464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가정폭력상담소	02) 2205-8455	02) 2605-8222	02) 2605-8466
제주여성회	일하는여성의집	031) 751-3700	031) 751-3702	
포항여성회	성남성폭력상담소	031) 751-2050	031) 751-2051	031) 751-1120
한국보육교사회	성남가정폭력상담소	031) 751-2050	031) 751-2051	02) 991-3606
한국성폭력상담소	평화의 샘	02) 825-1272	02) 825-1273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여성상담소	064) 756-7020	064) 744-0263	064) 749-0262, 1366
한국여성민우회	가정법률상담소	064) 756-4006	064) 744-0263	064) 744-2193
광주여성민우회	가정폭력상담소	054) 282-1799	054) 282-1798	054) 282-1799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성폭력상담소	054) 282-1470	054) 282-1798	054) 282-1470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보육정보연구소	02) 2268-3954	02) 2275-8506	02) 2275-8505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폭력문제연구소	02) 576-5450	02) 576-7127	
	여성실업대책본부(전국·지역)	02) 362-5307	02) 365-8766	
	서울일하는여성의집	02) 867-4456	02) 867-4459	02) 991-3606
	부산일하는여성의집	051) 503-7268	051) 505-7151	
	가족과성상담소	02) 708-4624	02) 708-4622	02) 739-1366
	생활협동조합	02) 581-1675	02) 3679-2202	
	송파일하는여성의집	02) 409-9501~3	02) 409-9606	
	가족과 성문제상담소	062) 225-0140	062) 225-0152	062) 521-1366
	기독교여성상담소	02) 2266-8275	02) 2269-0670	02) 2266-8275
	주부상담실	053) 426-0040		
	학부모상담실	02) 790-5241	02) 798-6094	

단 체	전 화	전 송	통 신
군산여성의전화	063) 445-2286 (상담 : 445-2285)	063) 445-2286	KSWHL(나)
김해여성의전화	055) 327-6447 (상담 : 329-6451)	055) 329-6452	
대구여성의전화	053) 475-8086 (상담 : 475-8082)	053) 472-1712	TKWHL WOMAN80(천)
부산여성의전화	051) 817-4321 (상담 : 817-8464)	051) 817-4320	PWHL(나)
서울여성의전화	02) 2272-2161 (상담 : 2263-6464)	02) 2272-2190	SEWHL(나)
성남여성의전화	031) 751-2050 (상담 : 751-6677)	031) 751-2051	SWHL(나), HKH3(천)
수원여성의전화	031) 232-7780 (상담 : 232-6888)	031) 238-7780	SWWHL(나)
시흥여성의전화	031) 312-4700 (상담 : 312-9100)	031) 312-7798	SHWHL(나)
안양여성의전화	031) 458-4385 (상담 : 454-4395)	031) 458-4386	AWHL(나)
영광여성의전화	061) 353-4994 (상담 : 352-1321)	061) 353-4990	JSHA(나)
울산여성의전화	052) 244-1555 (상담 : 211-1205)	052) 245-6713	UWHL(나)
익산여성의전화	063) 857-8163 (상담 : 858-9191)	063) 858-9191	ISWHL(나)
인천여성의전화	032) 527-0090 (상담 : 529-2545)	032) 527-0093	IWHL(나)
전주여성의전화	063) 287-7324 (상담 : 283-9855)	063) 287-7324	JWHL(나)
광원여성의전화	055) 266-3722 (상담 : 283-4933)	055) 283-3722	CHWHL(나)
천안여성의전화	041) 574-0505 (상담 : 572-2000)	041) 574-0506	CNWHL(나)
청주여성의전화	043) 252-0966 (상담 : 252-0968)	043) 255-0966	CJWHL(나)
구미여성의전화(준)	054) 458-1388	054) 458-1389	GULIM@hanmail.net
김포여성의전화(준)	031) 986-0136	031) 984-4141	KSNAM(유)
목포여성의전화(준)	061) 283-4551 (상담 : 283-4552)	061) 283-4510	MWOMEN(나)
부천여성의전화(준)	032) 613-4643	032) 613-4644	KSWHL(나)
순천여성의전화(준)	061) 755-8033	061) 755-8033	SCWHL(나)
진해여성의전화(준)	055) 546-8322	055) 546-8322	JHWHL(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 3675-9935	02) 3675-9934	여장연(나)
함께하는주부모임	053) 425-7701	053) 425-7701	함주모(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 708-5894	02) 708-5899	HAKBUMO(나), HAKBUMO/천

어머니의 뜰은 여성연합이
여성가장 창업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한정식당입니다



신선한 저공해식품을 엄선하
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의 일품안주와 주류도
함께 갖추었습니다.



정갈한 분위기에 맛있는 식사
와 편안한 술자리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 점심정식 6,000원
- 한정식 10,000원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담은 밥상 받으세요!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5-6(군자빌딩 B1)
02)2266-2646



더 큰 상은 아름다워진 당신입니다

태평양이 하는 일은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한다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은 사실보다 당신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아름다워졌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질 때까지 태평양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아니스프리: 마케팅대상 수상(마켓리더쉽/활동사례부문 최우수상)
 아이오페 파워리프팅: 마케팅대상 수상(신상품부문 명품상)





새로운 출발!

국민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국민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든든한 여당.
민생안정의 현장에서 젊은 민주당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희망, 국가적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자,
새로운 각오로 마음의 끈을 다시 조이고 앞장서서
개혁완수의 길을 능률하게 다시 헤쳐나가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새로운 차원의 주거공간에서 사십시오 현대건설 「밀레니엄 아파트」로 모십니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성평등 도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현대가 창조한 밀레니엄 아파트, 하이퍼리온과 홀타운 -
대한민국 아파트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밀레니엄 아파트로 고객 여러분을 자신있게 모십니다.



現代建設株式會社

www.hdec.co.kr *문의전화: 746-2664~5

HYUNDAI
現代홀타운

밀레니엄 화합리온 위한
인간중심의 대단지 주거용 아파트로
태어났습니다. 현대 홀타운

밀레니엄 리조를 위한
최고급 주거용 아파트로
태어났습니다. 현대 하이퍼리온



HYPERION



"살다보면 언덕도 있을 거야.

어디가 길인지도 모를 수 있지.

힘들때 지금처럼, 아빠 등에 꼭 기대면 돼.

언제까지나 아빠가 지켜줄게."

삼성생명 은 고객의 인간다운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과 이 사회의 행복한 내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을 지키는 힘, 삼성생명